

# 세계적인 찬불가 만들고자



비뷰티는 봉축을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 앨범을 발매했다.

## 무장르 보컬리스트 비뷰티

“불교음악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음반입니다. 또한, 비불자들도 감동 받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장르 보컬리스트 비뷰티(vimutti)가 'Buddhist Pop & Mind Healing Pop' 앨범 '부처님 오신 날' 을 발표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미소, 부처님오신날 등 이번 앨범에는 대중음악계의 유명 작·편곡자는 물론 기타리스트 함춘호, Tommy Kim,

을 얻었다.

비뷰티의 장르를 아우르는 이런 음악 활동에는 불교가 있었다. 금강경 독송 108배 등으로 수행을 놓치지 않는 그는 비뷰티(vimutti, 분명 홀범식)라는 예명 역시 해탈이라는 의미로 범명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만큼 그의 음악세계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크다.

“절수행을 하다보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돼서 발성이 두 배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을 할 때 집중도 몰입 혹은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은 도움을 주죠. 1주일 동안 써야 될 곡이 생각나지 않다가도 10분만에 곡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수행은 제 몸과 마음에 모두 영향을 미쳐 아티스트로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불교 수행을 통해 아티스트로서 큰 도움을 얻었기에 이를 대중에게 회향하고자 했다. “불교도 기독교처럼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있다면 좋은 포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부제로 붙인 'Buddhist Pop 그리고 Mind Healing Pop' 역시 대중들에게 새로운 불교음악을 보여주고자 하는 발원이 담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불자 비불자를 떠나 전세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이런 제 믿음과 함께 저의 음악이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흥얼거릴 수 있는 대중적인 불교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뷰티는 연세대 성악과와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를 거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성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음악을 섭렵한 그는 2010년 12월 '클래식컬 팝' 앨범 'Rest' 를 발매해 좋은 반응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 시각장애인 “백제향로 촉각체험해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상설 전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이 전시관에는 전시품 모형 촉각 체험, 간편한 조작으로 자율적인 전시품 해설 정취, 점자해설 읽기 등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주먹도끼(구석기) △달걀 요령식 동검(청동기·고조선)

쇠투검장(부여·삼한) △백제금동대향로(백제) 고종황제·명성황후 옥보(조선) 등 시대별 유물들을 시청각화해 체험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시공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상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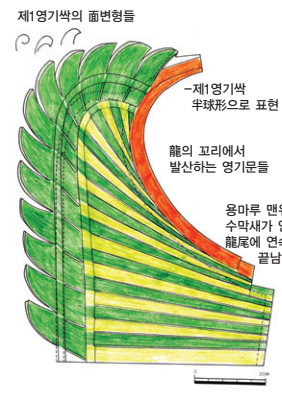
##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치미→용미

# 용의 형상 강력한 '영기화생'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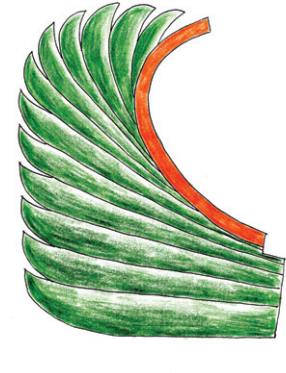
건축에서는 모든 부재를 용화(龍化)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대들보나 다른 모든 부재들에 항상 용을 그리지만, 실제로 대들보나 기둥들은 전주 송광사 대웅전이나 개심사 법당들에서처럼 구불구불한 소나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학자들은 그런 구불구불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은 자연스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큰 오해이다. 몇 개의 예로 한국미술 전체를 민예적(民藝的) 성격으로 규정하는 큰 오류를 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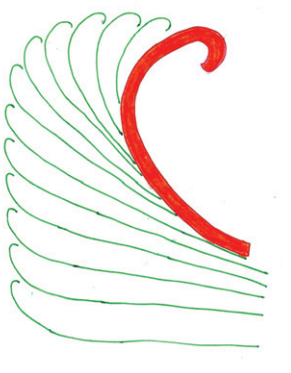
그림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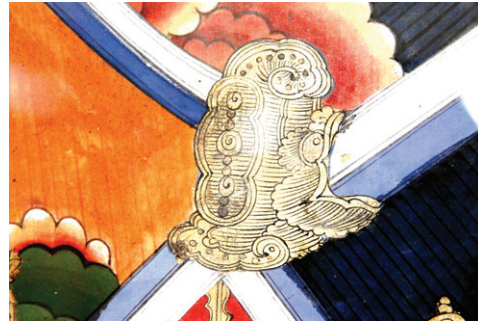
그림②



그림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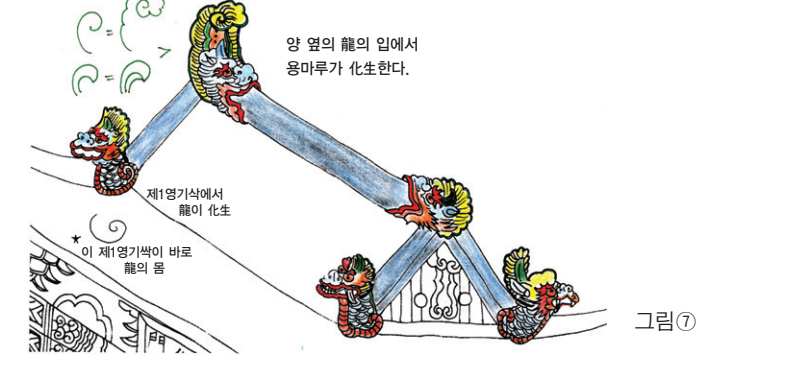
그림④



그림⑤



그림⑥



그림⑦

## 건물 부재들 대부분 용으로 표현

치미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지붕 맨 위의 아름다운 곡선을 이룬 부분을 '용마루'라 부른다. 그러나 기와로 잇기 때문에 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증거가 있다. 모든 용마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용마루 중앙에 보주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두 용이 가운데 보주를 두고 마주보는 도상을 모든 장르에서 많이 보아왔는데 바로 그것을 용마루에 형상화한 것이다. 이미 고려화에서 보았다.

그러면 가장 시대가 앞선 백제의 용미를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불화를, 그리고 중국 것과도 비교해 보면서 참으로 용미인가 확인해 보자. 부여 부소산 왕궁 터에서 아름다운 용미가 출토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치미라 부르고 있다.(그림①) 그 형태를 채색분석해 보면, 빨간 색으로 칠한 탄력 있는 입체적 제1영기(영기)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용마루와 이 제1영기(영기)로 부터 강력한 영기가 발산하는데(그림②), 그 끝마디의 동물의 이빨 같은 형태들이 모두 제1영기(영기)의 변형들이다. 이 전체의 의도를 살려 다시 그려서 채색분석했다.(그림③) 다시 그것을 추상화했다.(그림④) 이것이 용의 실제임을 차차 알 것이다. '날개가 아니고 용으로부터 발산하는 영기'이다.

수락산 흥국사에 있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표현한 18세기 팔상탱(八相幢)에는 많은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건물들의



그림⑧



그림⑨



그림⑩

지붕에는 역시 용의 모습이 많다. 용의 입에서 용마루가 생기는데 용의 몸이 길면 이상하므로 짧게 축약하여 표현한다.(그림⑤, 그림⑥) 용은 원래 일정한 모습이 없어서 예술표현에 매우 적합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존재일수록 변형이 자유자재하다. 그 조형을 채색분석해 보았다.(그림⑦) 점점 부소산 출토 용미의 조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송례문의 복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원을 한다고 해도 500년 풍우를 헤쳐 온 강인한 정신은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하리라! 송례문 지붕 용마루 양쪽에 있는 것은 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눈썹 부분에서는 불꽃 모양의 영기(영기)가 나오고, 온몸을 제1영기(영기)

더 전개하여 제2영기(영기)로 표현했다.(그림⑧) 용을 이렇게 압축하여 표현했다. 용의 입에서 송례문이 화생하는 것이다.

## 백제와 중국 용마루 꼬리에서 용 화생

중국의 예를 보자. 송(宋)대의 송화서학도(宋畫瑞鶴圖)에서는 용을 학으로 보았다. 그 꼬리를 날개로 본 모양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용이며 용의 입에서 용마루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꼬리가 부소산 출토 백제 용미와 가깝다.(그림⑨) 그런데 역시 9세기 요(遼)나라의 독락당산문(獨樂寺山門)의 송개꼬리를 보면 틀림없이 긴 용전체를 압축하여 표현했다. 머리에서 길게 뻗어 올라간 빨간 색의 제1영기(영기)는 분명히 백제 용꼬리와 가깝지 않은가! 그리고 몸에서 생기는 녹색의 갈기 같은 것

도 용과 제1영기(영기)에서 발산하는 영기이다.(그림⑩)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백제의 용미는 후대의 조선시대와 중국의 송과 요 나라의 예에서 정답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치미(송개꼬리)로, 중국은 치문(鶻鳥) 역시 송개꼬리)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이제 건축에서 용마루와 용미(실은 용의 축약)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영기화생론'에 의해, 용의 꼬리에서 용이 화생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려면 또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인가.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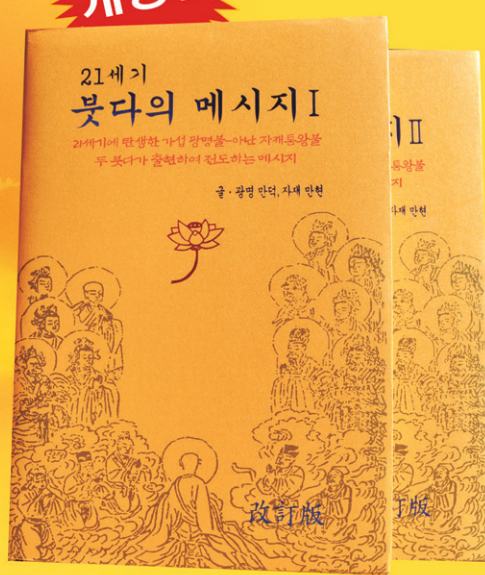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